

‘휴일 단수’ 피해 보상한다... 금액·인과성 ‘숙제’

광주시 피해보상위서 보상 결정
현재 단수·탁수 피해 330건 접수
2019년 사례 적용... 피해기준 모호

광주시가 지난 휴일 단수 피해를 입은
가구와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에 나선
다. 수돗물피해보상심의회를 통해 보상방
안을 검토 중이지만 보상규정이 모호해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우려된다.

13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덕남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남구와 광산구 등 2만8000세대가 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 피해 세대 및 영업장
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가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까지 가접수 결과 피
해 규모는 일반 단수 275건, 흐린물 10건
등 총 330건이다. 저수조에 물을 채워둔
아파트의 경우엔 피해가 적었지만 단수와
흐린물 피해가 컸던 단독주택을 비롯해

카페나 미용실, 음식점 등 물 사용이 많은
영업장에서는 영업 중단 등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향후 정식으로 피해보상을 접수하
고 ‘수질사고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
라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상 기준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했
던 광주시 서구·남구 수질사고 때 작성됐
던 ‘광주시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보상심
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예정이지만,
규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번 사고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시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보상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은 총15조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 △심의위원회 보완 △신청인
의 동의와 보상금 등의 지급청구 △결정
△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 제2조에서는 수질사고 피해구
모가 단독 500세대 이상, 아파트 2개단지
이상 확산될 경우 그리고 위원장이 설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상심의위
원회가 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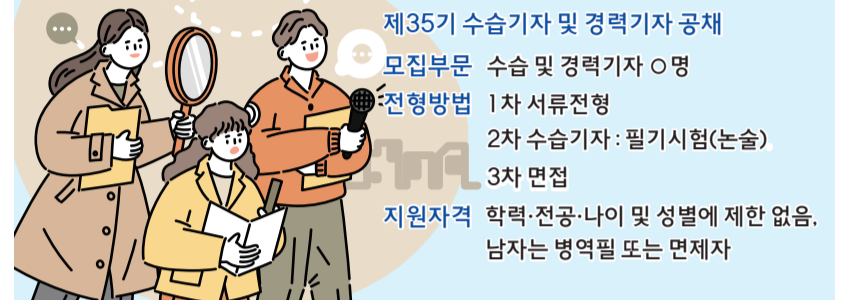
보상금은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보상
규정은 절차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금액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
아, 피해액을 산정하고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마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수도 관련 사고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기준이 일관적으로 적
용될 수 없다”며 “다만 2019년 11월 발생했
던 사고를 참고해 이번 단수사고의 보상금
액이나 방법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광주시 서구와
남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인
사고에서 광주시는 수질사고보상심의위
원회를 열고 △정수기 필터교체 비용 △아
파트 저수조 청소비용 △생수 구입비 △수
돗물 음용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영업피해보상비 등 285건 7200만원을
지급했다. ▶관련기사 3면 박상지 기자

알립니다

멀티미디어 전남일보 ‘주역’을 찾습니다



제35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공채
모집부문 수습 및 경력기자 0명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수습기자: 필기시험(논술)
3차 면접
지원자격 학력·전공·나이 및 성별에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3년 2월 17일(금) 15시까지
*접수처 E-mail : recruit@jnilbo.com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필기시험 : 2023년 2월 21일(화) 10:00 예정
전남일보 승정문화관(지하 1층)
■ 면접 : 대상자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 지면 및 홈페이지에 공고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본사 소정 양식, 전남일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경력기자는 기명기사 3건 이상
※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일보 경영본부(062-510-0421)로 연락바랍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성금 모금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13일 북구청 1층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세계 수준 아시아 문화예술 선도기관 도약”

ACC, 통합전당 2년차 ‘4대 전략’
전시관 상설 운영·관람환경 개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올해 통
합전당 2년차를 맞아 국가의 문화적 역량
을 강화하는 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
적인 준비에 나섰다.

ACC는 세계 수준의 아시아 문화예술
선도기관 도약을 위해 4대 전략을 마련,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4대 전략은 △아시아 연구와 융·복합 콘
텐츠 창·제작 기반 체계화 △지역·국가·세
계 네트워크 확장 △아시아 문화 가치 확산
과 이해 △전시 관람 서비스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ACC는 올해 아시아문화자원과
함께 동시대성을 주제로 창·제작 기반 융·
복합 콘텐츠 전시관을 상설 운영한다.

전시 관람 환경 개선과 이용객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시설도 강화한다. 우선 복합
전시6관 내 향음·향습시설을 조성해 전시
관람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ACC 문화상품점도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ACC 콘텐츠 연계 상품과 지역·국
내·아시아의 우수 디자인 상품을 발굴해
일상 속 아시아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14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이강현 전당
장은 “전당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
하고 광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열린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
구 등을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5면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제20회 호남마라톤

<p>대회일시 2023년 4월 16일(일) 오전 7시~</p> <p>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p> <p>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p> <p>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p> <p>참 가 비 30,000원</p>	<p>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p> <p>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p> <p>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p> <p>참가문의 061) 375-1201</p>
--	--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